



# 과맹출된 상악구치의 교정적 함입과 하악 무치악부의 임플란트 수복 증례

이지민\*, 이규복, 이청희, 조광현 |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우식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고 수복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면, 인접하는 치아 및 대합치의 무치악부로의 이동이 일어난다. 특히 대합되는 상악 구치부의 정출은 악간공간의 상실을 야기하며 이는 차후의 보철수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대합치의 정출정도에 따라 사용되어 왔다. 법랑질 성형, 교정적 함입, segmental osteotomy, 발치 등의 방법이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삭제량의 한계, 고정원으로 사용되는 치아의 정출과 구외 장치를 포함한 복잡한 교정장치, 외과적 수술에 대한 부담 등의 단점이 있다. 대신, 과맹출된 상악 구치로 인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관 치료와 치주 수술 후 정출된 치아의 치관을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도 건전한 치아와

치주조직에 손상을 주며 결국 근관치료된 치아의 수복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 skeletal anchorage를 이용하는 micro-implant의 사용으로 치주 건강 및 치아의 생활력을 유지하며, 보철수복을 위한 순수한 구치의 함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Micro-implant는 식립이 용이하고, 즉시 부하를 가할 수 있으며, 또한 식립 위치에 제한이 적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

본 교실에서는 교정과와의 협진으로 micro-implant를 이용하여 교합평면을 회복하고, 상실된 하악 구치부에는 임플란트를 식립 후 보철수복하여 심미적, 기능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